

## 루마니아 증보기도 24시: 5월을 마무리하며

“기도외에 다른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수 없느니라”

빠체 보우어!

동구전선 루마니아에서 평안을 전합니다.

알코올 중독에 담배 골초에 아내와 딸까지 집을 나가서 세상에 살 소망이 절망이었던 로메오 형제를 아버지학교 관리팀 스텝으로 섬기도록 회개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로메오 형제의 이웃집 친구인 비오렐 형제와 온 성도들이 로메오의 구원과 가정회복을 위하여 눈물로 구했습니다. 20년 동안 그리스에서 건축일을 했다며 비오렐 형제가 극구 칭찬을 해가며 지도자 영성 훈련센터/청소년 문화센터 건축일에 써다라고 애걸을 하길레 믿고 일을 맡겼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일거리를 주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시작된 슬라브 콘크리트를 치기 위한 공사를 준비한 것들이 잘못되었다며 겨울을 잠깐 지나 올해 3월부터 5월 초순까지 무려 4개월이 넘도록 일했습니다. 로메오 형제 말은 작년 11월에 처음 슬라브 공사를 시작할때부터 틀을 잘못잡아서 문제가 많다고 투덜 대길래 그러면 바로 잡아서 일을 계속 진행하라고 비오렐 형제를 감독관으로 내세워서 로메오와 비오렐 형제에게 전적으로 맡겼습니다. 비오렐이 기뻐하며 “목사님 슬라브 칠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레미콘을 불러주세요” 하길래 “야 드디어 힘든 고생이 끝나는구나. 슬라브만 치면 두다리 쪽 뻘고 두주간은 편하게 잘수 있겠네?” 드디어 설레이는 마음으로 레미콘을 불러서 콘크리트를 치기위해 마지막 최종적으로 점검하기 위하여 지난 4개월 동안 일한 것을 둘러보았더니 “이게 뭐야?” 도저히 콘크리트를 칠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벽에다 합판을 댄것도 엉터리로 해놓았고 합판과 합판 사이사이 틈새가 너무나 커서 콘크리트를 넣으면 줄줄새게 생겼습니다. 수평도 잡았다고는 하는데 슬라브 평면이 반듯하지가 않고 3개월 임신한 배불뚝이가 된것입니다. 로메오는 그 길로 도망을 쳤는지 더이상 건축 현장에 나타나지를 았았고 고민 고민 하다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4개월 동안 일한것을 백지화 시키고 2층 슬라브 치는 것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비오렐도 지칠대로 지쳤고 7명의 양자삼은 아들들도 박선교사 부부도 지칠대로 지쳐서 가능한대로 6월 말까지 지붕만 씩워달라고 호소를 하고는 술렁대는 아들들과 학부모들의 믿음없는 소리들을 향하여 통성기도로 분위기를 막았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아버지가 시작하

셨으니 아버지가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십시오.” 주일날은 40일 철야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우리가 가진 것은 건강한 몸 뿐이다. 우리는 돈도 없다. 우리는 건축 기술도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목소리를 높여서 죽든지 살든지 아버지한테 때 쓰는 것 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기도밖에는 없는 것 같구나. 내일 저녁부터 아빠는 40일 철야기도 들어갈란다. 너희들도 아빠가 일찍 죽는 것 안볼려면 알아서 기도해라. 그러나 강요는 하지 않겠다.”

**“Fie că mor și fie că trăiesc, Facă Se voia Ta.”**

(피에 꺼 모르 쉬 피에 꺼 트러이에스고, 파꺼 세 보이아 따)

**„살든지 죽든지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죽든지 살든지 겿세마네 40일 철야기도**

■일시: 2015년 5월 25일 – 6월 2일 ■시간: 24:00 – 04:00

**중보기도 식구들과 함께 기도제목을 나누고 싶습니다.**

- 1) 겿세마네 집시교회 공동체 영적부흥과 성령의 기름부으심을 위해
- 2) 2/4분기를 잘 마무리하고 3/4분기 사역 준비를 위해
- 3) 지도자 영성 훈련센터/ 청소년 문화센터 건축을 위해
- 4) 고등학교 시험을 준비하는 6째 아들 발리를 위해
- 5) 대학 시험을 준비하는 첫째와 둘째 아들 꼬스띠와 하지를 위해
- 6) 대학과 대학원 졸업 시험과 논문을 준비하는 제이와 시모나를 위해
- 7) 고등학생 장학금 지원을 위한 미니 가축 농장 건축을 위해
- 8) 미생물 유기농법 2차 교육을 위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동구전선 루마니아에서 박창수 심은식 선교사 드림



고등학교 장학금 지원 미니 농장 여기까지 건축했습니다.

